

# 순천시,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총력

## 5대 분야 14개 핵심과제 확정...주요 특화산업 배치 주력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신설 요청...“임직원 정주환경 조성”

순천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지역산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발전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 직접 녹여드는 '지역 특화산업 연계

맞춤형 재배치'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관과 지역 산업이 맞물릴 때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수량 확보가 아닌 '기능적 융합'의 기회로 삼

아. 전남·광주통합 시대에 부합하는 남해안권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연결된 주요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순천시는 자체 용역과 부서별 대응 보고를 종합해 5대 분야(반도체, 문화, 우주, 바이오, 치유) 14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4개 과제는 공공기관 이전 11개와 신설 2개, 제도개선 1개로 구성됐다.

먼저 유치 목표 공공기관으로 반도체 및 수자원 분야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전자기술연구원(분원), 한국수자원공사 안권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연결된 주요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순천시는 자체 용역과 부서별 대응 보고를 종합해 5대 분야(반도체, 문화, 우주, 바이오, 치유) 14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4개 과제는 공공기관 이전 11개와 신설 2개, 제도개선 1개로 구성됐다.

먼저 유치 목표 공공기관으로 반도체 및 수자원 분야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치유와 결합한 '생태·치유형 선진 레저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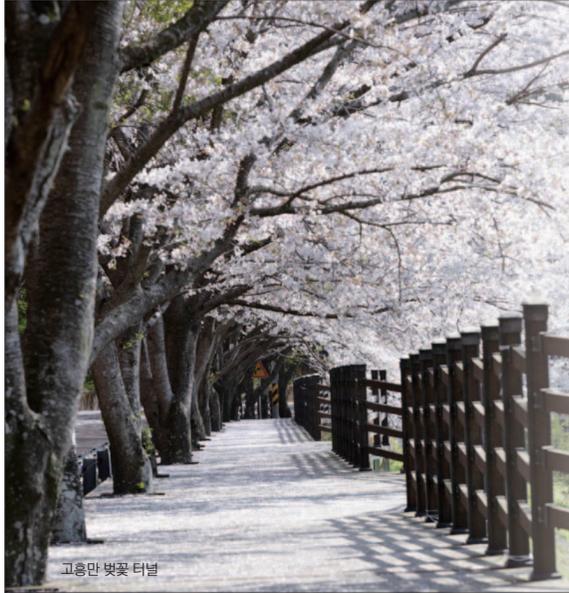
공공기관 신설도 건의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신설을 요청하고, 5대 분야와 별개로 남부권 신산업을 육성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남부권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이

전 원칙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배치에 제약이 될 수 있어, 행정통합 지역에 한해 입지 자율성을 확보해 전략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는 순천의 전략산업과 맞물려 지역 경쟁력을 높여줄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유치 명분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유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고흥, 여행가는 달 '우주철도 999' 특별운영

철도요금 100% 환급...관광객 유치 기대

고흥군은 철도여행과 지역 소비를 긴밀하게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인 '우주철도 999'를 확대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우주철도 999 (지역사랑 철도여행)'는 코레일 철도 관광상품과 연계해 고흥을 찾는 여행객에게 교통비 환급과 지역 상품권 지급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특히 코레일은 '2026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철도요금을 최대 100%까지 사후 환급해 주는 특별 이벤트를 운영해 관광객 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주철도 999'는 고흥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다.

여행객이 고흥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지역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 (Chak)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한 지정 관광지 방문 후 QR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철도 운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이벤트가 숙박과 소비를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구조로 전환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급되는 지역 상품권은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해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관광시설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철도 999는 철도여행의 접근성과 고흥의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이라며 "관광객이 고흥에 머물며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 보성,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밴드 앱 활용 임신육아 챌린지

보성군은 임신부와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임신육아 챌린지'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임신육아교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밴드(BAND)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미션 수행과 인증 활동을 통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 중 3개 이상의 미션 수행이 가능하며, 연 최대 5개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영양플러스 온라인 영양교육 전문 강의, 임신부 태교·정서 안정을 위한 공예 체험, 보성군 특산품과 제철 식재료 밀키트를 활용한 요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가정에서도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72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이며, 총 30명을 4월까지 수시로 신청받는다.

신청은 보성군 누리집 배너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보성군 보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로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이 다양한 교육과 맞춤형 정보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066@

## 광양, 로봇·AI·반도체 중심 미래산업 육성 G-Future추진단 신설...특화 로드맵 수립

광양시가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전남 동부권의 산업 전환을 이끌기 위해 'G-Future(퓨처) 추진단'을 신설했다.

G-Future추진단은 '광양(Gwangyang)의 미래(Future)'를 이끌 미래 전략산업 현장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병행해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시장 핵심 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국비 확보와 정책 대응력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G-Future추진단은 광양의 미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차질한 로드맵과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광양시를 산업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특히 중장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전남도의 핵심 공모사업 선제 대응, 미래 전략산업 관련 유망 기업 유치, 산·학·연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병행해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시장 핵심 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국비 확보와 정책 대응력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G-Future추진단은 광양의 미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차질한 로드맵과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광양시를 산업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 광양시 "푸른 도시 만들어요"

광양시는 최근 봉강면 석사리 70-8번지 일원에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시민 380여명이 참여해 편백나무 4년생 묘목 2000여그루를 심으며 푸른 미래를 가꾸는 데 함께했다.

사신제경=광양시

## 구례,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114명...26일까지 신청 접수

구례군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군 인재육성장학생 114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은 신청일 기준 30세 미만 재학생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은 구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적우수 분야 대학 재학생 선발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직전 학기 성적이 B0 이상인 신청자는 모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중학생은 교육장이,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한다.

군은 인재육성장학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장학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대학생 29명(각 200만원), 고등학생 35명(각 100만원), 중학생 30명(각 30만원), 초등학생 20명(각 20만원)으로 총 114명이며, 1억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인재육성장학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

## 곡성,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위원회 개최

32농가에 28억 용자 지원

곡성군은 최근 '2026년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용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창모 부군수를 포함한 심의회 위원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용자 지원 대상자 선정안을 심의하고 32농가에 약 28억원을 용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 대상자는 농지 구입, 축사 개·보수, 한우 입식, 작물 생산 기자재 구입 등 시설·운영 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 담보 능력에 따른 용자 실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농협은행(곡성군지

부에서 저금리 용자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4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3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정창모 부군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장)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농번기 이전에 지원돼 고금리·고물가 경제 상황과 이상기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996년부터 주민들의 자립 의욕 고취와 농촌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원해 오고 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 장흥, 위기브와 고흥사랑기부 10억 달성 매진

### 기금사업 참여 확대·모금 활성화...지역 상생 기반 마련

장흥군이 고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함께 한다.

군은 고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모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부 플랫폼 공감만세 '위기브(WeGive)'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모금 확대에 나선다.

이번 계약은 기존 고흥사랑기부제 공식 기부 창구 외에 민간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기부 참여 경로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브는 고흥사랑기부제 모금 전문 민간 플랫폼으로, 스토리텔링형 모금 방식과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통해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이를 활용해 지역의 가치와 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올해 고흥사랑기부제 모금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청년, 향우, 지역에 관심 있는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중심의 확산형 홍보를 통해 고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군은 기부금이 주민 복지 증진,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으로 활용되는 만큼, 민간 플랫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기부 기반을 마련하고 모금 목표액인 10억원 달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고흥사랑기부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장흥군에 관심을 갖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홍보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